

『시장과 전장』의 생존의 서사

박은정*

차례

1. 서론
2. 사상 검열의 허구성과 생존의 모색
3. 전시 서울의 시장 형성과 생존
4. 결론

〈국문초록〉

박경리 장편소설 『시장과 전장』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이 생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전시(戰時)의 생존은 총과 칼의 겨냥으로부터 피해나가는 것이고, 의식주의 해결로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쟁에서는 이런 전쟁에서의 생존 문제에 ‘이데올로기’라는 문제가 더해져서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문학에서 전쟁을 다룰 때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또한 전시(戰時) 굶주림의 문제 또한 거론되었다.

『시장과 전장』은 기훈의 서사와 지영의 서사로 나뉜다. ‘기훈’의 서사는 공산주의와 아나키즘 등 이념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한편 ‘지영’의 서사는 소시민으로 전쟁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현실의 측면을 그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전시의 생존 문제에 주목한다. 『시장과 전장』에서는 전시 생존의 문제를 ‘사상의 검열’과 ‘시장 형성’으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로 파악하고 있다. ‘사상 검열’의 문제는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남측에서 ‘빨갱이’이데올로기로 파악되는 ‘반공’이데올로기와 이에 비견되는 북측의 ‘반동’이데올로기의 문제이다. 『시장과 전장』에서는 아무런 사상도 이념도 없는 민중들이 전쟁을 거치면서 반공 혹은 반동 이데올로기의 검열로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 작품은 전시 생존의 근원적 문제인 의식주의 해결을 ‘시장’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전세의 흐름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포착하여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전시의 생존 문제를 ‘지영’의 서사를 통해 살핀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피난을 하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있던 지영은 서울의 점령군이 인민군과 국군, 중공군과 연합군으로 바뀔 때마다 사상 검열을 통과해야만 했다. 이 문제로 남편이 잡혀가고, 어머니가 죽음을 맞게 된다. 하지만 사상 검열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정작 ‘사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이 소설은 보여준다. 그동안 박경리 초기소설은 전쟁미망인 혹은 지식인 여성의 문제, 이데올로기의 문제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덧붙여 박경리 소설이 한국전쟁 당시 사회, 경제 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핵심어 : 한국전쟁 소설, 박경리 전쟁소설, 전시 생존, 사상 검열, 반공이데올로기, 반동이데올로기, 전시 시장 형성

1. 서론

한국전쟁 직후 한국 문단에 발표된 소설들은 전쟁의 영향력을 직, 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당시 한반도 사람들은 전쟁이 가져온 폭력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오랜 식민지 하의 위축된 글쓰기에서 벗어나 해방공간에서의 새로운 창작 방법을 모색하던 작가들에게도 예외는 아니

다. “전쟁의 한복판, 그리고 이후의 폐허 위에 선 작가들을 근본 구속한 것은 이렇듯 엄청난 지각변동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전쟁이라는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린 터라 냉정하게 현실을 탐구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지 못했다. 전쟁터틀, 포로수용소를, 적 치하 골방을, 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피난길을 익명으로 떠돌아 살아남아야 하는 극한 상황 속에 있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경험의 자장으로 부터 풀려나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다.”¹⁾ 그러므로 전후 소설에는 이런 작가들의 직·간접적 체험이 바탕이 되어 이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폭력과 이로 말미암은 상실감과 무기력이 담기게 된다.

특히 전후세대 작가들²⁾의 작품에서는 초토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정신적, 육체적 혹은 현실적 결핍을 담고 있다. 박경리 소설의 경우 지식인 여성이 가족 구성원의 결핍 상황에서 현실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50년대에 발표된 초기 단편에서는 주로 가족 상실을 겪은 지식층 전쟁 미망인이 전후의 사회현실에 분투하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전쟁미망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했지만 그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는 거의 없는 현실이었다. 더구나 전통적 성역할에서 사회활동의 영역 즉 경제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남성들은 지식인 여성의 사회진출을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지식인 전쟁미망인을 전후 사회의 희생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활동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런 배경으로 박경리 초기 소설에 대한 연구들 중 다수는 여성 인물

1) 김윤식, 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348~349쪽.

2) 전후세대(1950년대)란 통상, 오영수, 김성한, 손창섭, 장용학, 한무숙, 유주현, 정한숙, 강신재, 박연희, 손소희 등 전쟁 이전에 『예술조선』, 『백민』, 『신천지』, 『문예』 등으로 등단한 작가와, 전쟁 이후 『사상계』, 『문학예술』, 『현대문학』 및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이호철, 김광식, 오상원, 서기원, 최상규, 하근찬, 박경리, 송병수, 선우휘, 이법선, 전광용, 추식, 강용준, 한말숙, 박경수, 오유권, 박학송, 최인훈 등을 가리킨다. 전쟁이 끝난 뒤 『현대문학』, 『문학예술』, 『자유문학』 등의 문예지를 무대로 본격적으로 펼쳐진 그들의 작품 활동을 통해 비로소 전후문학이 성립된다. 위의 책, 361쪽.

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과 관련된 박경리 소설 연구에서는 ‘전쟁미망인’의 문제가 중심에 있었다. 서재원은 「흑흑백백」, 「불신시대」, 『표류도』를 전쟁미망인 당사자인 여성주체의 입장에서 창작을 함으로써 ‘전쟁미망인의 실존’을 그렸다고 보았다. 이 작품들을 통해 여성가장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가는 여성을 주체로 형상화했다는 것이다.³⁾ 허연실은 「흑흑백백」, 「전도」, 「회오의 바다」, 「벽지」를 대상으로 전후 여성 인물들이 겪는 갈등의 문제가 ‘전쟁’으로부터 기인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으로 전쟁미망인인 여성 인물들의 갈등의 원인이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 체제의 폭력성에 있다고 보았다.⁴⁾ 이선미는 박경리 초기 소설의 특성으로 여성 가장의 저항의식을 꼽았다. 박경리 소설의 여성 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 애쓰는 것이다.⁵⁾ 김예니 역시 전후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여성을 비롯한 약한 존재들이 금력이나 권력 앞에 자존을 지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세상을 등지지도, 타협하지도 않고 살아남는 방식으로 세상에 저항한다는 것이다.⁶⁾ 김은하는 장편소설 『표류도』에서 전쟁미망인의 육체를 계도와 처벌의 대상으로 무력하게 위치 지어진 수동성이 아니라, 가부장제를 공격하고 해체하는 히스테리의 언어로 재발견했다.⁷⁾ 유임하는 『애가』와 『표류도』 두 작품에 대해 전후 직업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전후사회의 안팎을 조망하고 통찰하는 새로운 면모를

3) 서재원, 「박경리 초기소설의 여성가장 연구 - 전쟁미망인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0집 (15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4) 허연실, 1950년대 박경리 소설의 ‘근대’와 ‘여성」, 『한국문예비평연구』 3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5) 이선미, 「한국전쟁과 여성 가장 : ‘가족’과 ‘개인’ 사이의 긴장과 균열 - 1950년대 박경리와 강신재 소설의 여성 가장 형상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6) 김예니, 「박경리 초기 단편소설의 서사적 거리감에 따른 변화 양상」, 『돈암어문학』 제27호, 돈암어문학회, 2014.

7) 김은하, 「전쟁미망인 재현의 모방과 반영 - 박경리의 『표류도』를 대상으로」, 『인문학 연구』47,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소설들이 박경리 초기소설에서 1인이 겪은 전쟁의 상처와 고통을 만인의 고통과 상처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한 데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⁸⁾

박경리 소설에서 ‘전쟁’과 관련해서는 『시장과 전장』을 통해 보다 다양하게 논의된다. 『시장과 전장』이 발표될 시기의 연구를 살펴보면 코뮤니스트로 등장하는 하기훈의 이념적 면모에 주목한다. 이들 논의는 기훈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인다. 그는 공산주의자이기보다는 그 성격을 알 수 없는 복합적 인물이거나⁹⁾ 전형적인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자칭 공산주의자¹⁰⁾로 규정된다. 이후 기훈과 주변 인물들의 이념에 관해서는 보다 확장된 논의가 이어진다. 한점들은 『시장과 전장』을 아나키즘적 시각에서 6.25의 참상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60년대 리얼리즘 문학의 지평을 한 단계 올려놓은 공적이 있는 작품으로 평가했다. 전쟁이 보여준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를 아우르는 아나키즘적 면모를 이기화를 통해 보여주었다고 보았다. 김양선은 『시장과 전장』을 지영의 서사와 기훈의 서사로 나누어 살피면서 기훈과 가화의 낭만적 사랑과 좌절을 통해 ‘전쟁’에 대한 부정성을 드러낸다고 보았다.¹¹⁾ 임경순은 전쟁으로 인한 인물의 변모에 성찰이 동반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공산주의자 기훈을 이념을 매개로 한 초월적 인물로 그림으로써 이념과 현실 정치를 분리하고 있다고 했다.¹²⁾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전쟁과의 연관선상에서 논의된 박경리의 소설 연구는 전후 사회의 여성 문제와 이념의 문제로 정리된다. 기존 연구를

- 8) 유임하,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문학적 전환 - 『에가』, 『표류도』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4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 9) 백낙청, 「피상적 기록에 그친 6.25수난」, 『신동아』, 동아일보사, 1965. 4.
- 10) 조남현, 「시장과 전장론」,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 11) 김양선, 「한국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 『페미니즘연구』 제8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8.
- 12) 임경순, 「유토피아에 대한 몽상으로서의 이념」, 『한국어문학연구』 제45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 8.

통해 박경리 소설이 초기 단편에서 장편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가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해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장되어 감을 밝혔다. 특히 『시장과 전장』의 연구를 통해서도 한국전쟁의 특징인 이데올로기 문제와 관련한 의의와 한계를 밝힘으로써, 박경리 소설의 지평이 현실적 문제에서 이념적 문제로까지 넓혀졌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박경리의 소설이 보여준 전후 인식의 넓이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깊이의 측면에서 확장을 제시함으로써 큰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전시 생존의 문제이다. 전쟁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변수들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 변수들을 모두 피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전쟁은 이런 일반적 변수들 위에 사상의 문제라는 특수성이 더해진다. 『시장과 전장』은 이런 한국전쟁에서의 생존문제를 다루고 있다. 더구나 치열한 격전지도 아니며 사람들이 몰려든 피난지도 아닌 ‘서울’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전쟁에서 ‘서울의 점령’은 전세를 가늠하는 상징적 기준이 되었다. 서울이라는 공간 속에서 점령군들은 전쟁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변수들을 피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상을 요구하였고, 이 문제는 또다시 사람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한편으로 서울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떠나버린 텅빈 공간이었다. 이 공간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는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시장과 전장』은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모습을 ‘시장’의 형성을 통해 보여준다. 그동안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에서 전시 생존을 위협하는 굶주림의 문제는 흔히 거론되었지만 ‘시장’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은 『시장과 전장』 외에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시장과 전장』은 한국전쟁 당시 ‘서울’이라는 공간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런 작품의 특성을 좀더 천착해서 파악해나간다면 그동안 연구된 『시장과 전장』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과 전장』은 박경리 전후 소설이 ‘전쟁미망인’의 영역에서 한정되어 파악되거나, ‘이데올로기’의 문

제에서 비판적으로 평가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작품이다. 따라서 『시장과 전장』은 한국 전쟁 소설에서 새로운 의미를 파악해 낼 수 있는 작품으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한 작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과 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생존의 측면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전쟁에 대한 작가의 생각의 폭이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사상 검열의 허구성과 생존의 모색

한국전쟁을 흔히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한다. 이는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정세가 냉전의 기류에 휩싸인 상황에서 한반도의 남과 북이 자본주의 진영의 미국과 공산주의 진영의 소련, 중공을 등에 업고 치른 전쟁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이데올로기가 실상 남과 북의 그것인가’라는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다룬 많은 작품들이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박경리의 소설 『시장과 전장』은 하기훈을 중심으로 이념 문제를 거론한다. 하기훈은 공산당원으로 당의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고, 전쟁에서 인민군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기훈은 자신이 공산주의자임을 입증할 근거도 없이 그냥 자신의 ‘이념을 사랑’¹³⁾한 한 사람으로만 존재한다. 그의 사회주의자로서 혹은 당원으로서의 활동은 구체성을 결여하거나 좌절된 결과로 나타난다. 한 예로 하기훈이 당의 지령으로 변절자 안행동을 암살하는 작전에 투입되지만, 작전 도중 안행동이 비만과 숙취로 사망함으로써 그가 지령받은 활동은 무산된다. 암살 지령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이가화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등 실제 공산주의 활동에서 벗

13) 박경리, 『시장과 전장』, 마로니에북스, 2013, 255쪽. 이후 텍스트 인용은 본문 내 페이지 표시.

어난 행동들을 보인다. 이런 하기훈의 행동은 공산주의자로서 그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¹⁴⁾

하기훈과 주변 인물들이 보여주는 사상과 죽음의 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상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죽음’으로 응징한다. 『시장과 전장』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조직이 있고, 그 조직에 대한 배신은 곧 죽음이라는 공식이 있다. 이런 공식은 안행동에 대한 암살 시도에서도 볼 수 있고, 공산주의에서 무정부주의로 변신한 석산 선생의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무엇보다 하기훈 역시 가화와의 사랑이 조직에 있어 배신으로 인식되어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하기훈이 스스로 커뮤니스트를 자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이고 있는 행동과의 불일치로 인해 한국전쟁이 가지고 있는 이념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시장과 전장』에서 제시되는 이념의 허구성은 소시민¹⁵⁾이라 할 수 있는 남지영 주변 인물들을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전쟁을 겪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념을 가진 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 이념도 가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전쟁을 통해 실체도 없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고통 받았고, 그 현실을 『시장과 전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과 전

14) 공산주의자로서의 하기훈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자칭 공산주의자일 뿐 현실로부터 벗어난 존재로 인식된다. 김은경은 작품 속에서 장덕삼이 하기훈을 ‘볼셰비크’, ‘레닌’, ‘스타린’ 등의 캄니스트와 구별되는 휴머니스트로 보고, 이가화 역시 하기훈이 공산주의자임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하기훈 자신은 주변 인물들에 의해 인식된 자신과 분리되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칭 캄니스트로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은 그가 현실과 유리된 존재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김은경, 『박경리 장편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가치’에 대한 태도와 정체성의 관련양상』,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2007.

15) 1960년대 한국문단에서 전후세대와 68세대 간에 ‘소시민’ 혹은 ‘소시민 문학’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소시민’의 의미는 일반적 의미로서의 뽀뽀 부르주아를 지칭한다. 『시장과 전장』에서 남지영 주변 인물들은 단순히 이데올로기와 상관없는 인물로 등장할 뿐 이 무관함이 탈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장』에서 남지영 주변 인물들은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를 선택한 적도 없고, 선택을 위한 적도 없다. 오히려 그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모른 채, 이를 피해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할 뿐이었다.

『시장과 전장』에서 남지영의 활동 공간은 주로 ‘서울’이다. 가족과 떨어져 연안에 머물던 지영은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돌아온다. 이후 지영과 가족들이 머물게 된 ‘서울’은 격전지 ‘전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후방’일 수도 없다. 서울은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국군이 후퇴한 뒤, 인민군과 국군, 연합군과 중공군이 번갈아 점령한다. 이들은 서울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 끝에 비로소 점령군이 되고,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서울은 전투가 지나가는 길목이 된다. 치열한 전투가 지나가고 점령군이 바뀔 때마다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의 검증’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 관문은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이때 이들에게 적용되는 이데올로기는 남쪽 사회에서 ‘빨갱이’이데올로기로 인식되었던 ‘반공’이데올로기였다. 그리고 이에 비견되는 것은 북쪽 사회의 ‘반동’이데올로기이다.¹⁶⁾ 서울의 점령군이 바뀔 때마다 서울을 떠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점령군의 검열을 거쳐야 했다. 인민군의 치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국군이 들어왔을 때 ‘부역자’라는 이름으로 처형되거나 처벌을 받았다.¹⁷⁾ 또한 인민군 치하에서는 국군 치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반동분자로 인식되어 죽임을 당하거나 고초를 겪었다. 이들은 새로운 점령군이 들어올 때마다 ‘반공’ 혹은 ‘반동’이데올로기의 잣대가 언제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정한 일상을 반복해야만 했다. 지영처럼 피난을 하지 않고 서울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전쟁의 향방에 상관없이, 양측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생존’만을 목적으로 견

16) 김재용, 「‘반동’이데올로기와 민중의 선택」, 『역사문제연구』, 역사문제연구소, 2001. 6. 98쪽.

17) 국군이 남하한 뒤 서울에 남아 인민군에 협력한 사람을 ‘부역자’라고 칭한다. ‘반역분자’, ‘공산분자’ 또는 ‘가담 협력자’라는 용어는 1950년 10월에 들어서 일제히 ‘부역자’로 바뀌었다. 이임하, 「한국전쟁기 부역자처벌」,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 - 미군 문서로 본 한국전쟁과 학살』, 선인, 2011, 144쪽.

더내고 있었다. 이들이 통과해야 하는 이데올로기의 검열에는 일정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영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 삼팔선 부근 연안의 여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남과 북의 접경지역인 연안은 언제나 “이북에서 밀고”(125쪽)을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특히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백천은 북쪽으로부터 대남방송이 들리는 가운데 “힘약하고 무거운 기류가”(101쪽)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공포는 북측에서 밀고 내려오게 되면 “옷 입는 것까지 나라 정책에 따라야 하는, 사상이 어떻고 인민이 어떻고”(125쪽)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때의 불안은 그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의 사회와는 다르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다. 6.25가 발발한 뒤 서울로 오기 전까지 지영에게 인민군은 그다지 두려운 존재는 아니었다. 인민군은 막연한 존재이고, “시베리아 노동수용소, 그것도 무섭지 않고 아름다울 것 같”(180쪽)은 비현실적 사고 속에 머물러 있다.

지영에게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가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전쟁 이후의 일이다. 인민군을 뒤로 하고 서울까지 피난을 온 지영은 가족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시도한다. 이들이 피난을 떠난 것은 전쟁 발발 사흘만인 6월 28일이다. 한강다리가 폭파되어 집으로 돌아온 이들은 인민군 치하의 삶을 받아들인다. 이들은 해방 후 삼팔선이 생기고,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삼팔선 이북의 사람은 북측 체제를 받아들이고, 이남에 있었던 사람들은 남측 체제를 받아들였듯이 국군이 남하하고 인민군이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소시민의 태도를 보인다.

지금까지 국군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공공연히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민군을 욕하는 사람도 없었다. 마음속으로 이들 피란민은 관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전 중 그들이 한마디의 의견도 없었던 것은 그들이 현명했기 때문이다. 피란민 중에 이북군 유격대가 있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보원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태세가 뚜렷이 나타남으로써 대한민국을 비난하지만 실상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 없고, 맞장구를 차면서도 서로 의심과 경계로써 살펴보며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저울질을 한다.(중략) 대한민국에 불만하고 여러 가지 압제에 증오를 느끼면서도 그들은 이북군을 진정한 해방자로서 맞이하지 못하는 착잡한 심정의 소시민인 것이다. 진정 민중들은 어느 쪽에 가담하고 있는 것일까?(217~218쪽)

이들 소시민들은 남측이나 북측 어디에도 기울지 않고 주어진 체제에서 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했으나 이들의 “불편부당”은 인정되지도, 허락되지도 않았다.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점령했던 인민군들이 북쪽으로 혹은 남쪽으로 쫓겨 가고 국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서울은 거센 소용돌이에 빠진다. 이들은 “빨갱이는 모조리 죽여라! 새끼도 에미도 다 죽여라! 씨를 말려야 한다!”(317쪽)는 구호와 함께 서울로 들어온다. 이들이 외치는 ‘빨갱이’는 기훈과 같은 ‘이념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민군 치하에서 “불편부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의 범주에 들어가 잔인한 보복을 당한다. ‘부역자’로 불렸던 이들의 부역 기준은 자발성이나 비자발성이나에 있지 않았다. 비자발성을 가졌더라도 그 결과 적(敵)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되면 ‘부역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피신한 자와 지하운동을 한 자를 제외하고 모두 ‘부역자’라 간주했다.¹⁸⁾

“대한민국이 달아날 적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요.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들이 달아날 적에도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것이 되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뒤집혀보세요. 달아나는 자는 또 죽이고 승리자 또한 죽일 거예요.”(371쪽)

18) 이임하, 앞의 글, 145쪽.

국군이 ‘부역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에 버리고 간 사람들이었다. 개전 초기 약 150만 명의 서울 시민 중 약 40만 명이 ‘도강’했지만, 나머지는 ‘잔류’하게 되었다. ‘잔류’한 사람들 중에는 북한군의 서울 ‘점령’을 고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잔류’한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피난할 때를 놓친 사람들이었다.¹⁹⁾ 실제 전황과 괴리된 허위방송, 정부의 피난·소개, 무계획과 무대책, 군경 수뇌부의 무능력, 한강교 조기 폭파 등의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한국 정부는 남하하면서 한강을 폭파했다. 한강 폭파로 한강 이북에서 격전을 벌이던 국군은 후퇴로를 잃었고, 한강다리 주변에 있던 800여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²⁰⁾ 인민군은 서울을 점령한 뒤 남아있던 군경 가족과 자산가들을 처형했다. 그리고 유엔군이 들어오자 다시 인민군 치하에 남아 부역했던 사람들을 처형했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남하할 때 한강다리를 폭파함으로써 피난길이 막혀 서울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인민군 치하에서 살아남을 수단으로 부역을 했지만 이는 다시 국군으로부터 처형당할 명분이 된 셈이다.

이처럼 전쟁에서 남한의 민중들에게 남의 일인 양 ‘내전’을 관조하듯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으며, ‘중도’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양 정권으로부터 ‘아(我)’가 될 것인지 ‘적(敵)’이 될 것인지를 강요받았고, 그 선택이 단지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상대방의 보복으로 돌아왔다.

관악산으로 피난을 갔던 지영의 가족들은 서울로 돌아와 인민군 치하에서 다시 생활인이 되었다. 지영은 삽을 들고 부역을 나가고, 지영의 남편 기석은 전쟁 이전처럼 회사에 나가 엔지니어로서 연구 업무를 이어간

19) 서울 탈환 후 서울을 벗어나 피난을 한 사람과 서울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사이에는 ‘도강파’와 ‘잔류파’라는 구분이 지어지지만 이들을 이분화할 수는 없다. 흔히 ‘잔류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잔류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잔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20) 강성현, 「한국전쟁기 한국정부와 유엔군의 피난민 인식과 정책」, 『전장과 사람들』, 선인, 2010, 124쪽.

다. 기석은 형 기훈을 잘 알고 있다는 동료의 권유로 공산당 입당원서를 제출하지만 과거 일본에서의 사소한 사건이 문제되어 입당은 거절된다. 기석은 “아무것에도 속해 있지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269~270쪽) 입당원서를 넣었다. 하지만 그 행위는 기훈에 의해 비겁함으로 규정된다. 공산당원으로서 신념도 없으면서 입당 원서를 넣는 것에 대한 비난이다. “비겁한 자에겐 반드시 교활함이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기석의 입당행위는 “뿌띠부르주아의 생활신조”(270쪽)일 뿐이다. 기훈의 우려는 연합군의 점령으로 현실이 된다. 기석은 공산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각되어 가족도 모르는 사이에 수감된다. 지영 또한 부역자로 간주되어 통행권을 발급받지 못하므로 기석의 행방을 확인할 길이 없다. 부산에서 올라온 송 영감의 힘을 빌려 권력에 기대어보지만, 지영의 통행권이 겨우 허락될 뿐 공산당에 입당하려 했던 기석을 구제하기에는 ‘반공’이데올로기의 위력이 너무 컸다.

한국전쟁에서 2차 피난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이 남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1차 피난 때에는 아무 것도 모른 채 단순히 전쟁을 피하기 위해 ‘도강’을 하거나 ‘잔류’를 했던 사람들이 2차 피난 때에는 1차 피난 때의 학습효과로 대부분 ‘도강’쪽으로 기울었다. 서울에 남아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역자’가 된다는 것을 체험했던 이들이 대부분 피난길에 오르자 서울은 유령도시로 변했다. 그러나 이때에도 ‘도강’과 ‘잔류’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잔류해야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시장과 전장』에서는 이처럼 개인적 사정으로 2차 피난 때도 서울에 잔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지영은 남편의 생사와 행방을 탐문하다 피난 시기를 놓치고, 이후에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떠나는 일에 어려움을 느껴 서울에 잔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주변에 몇몇 남은 집들 역시 병든 아이가 있다거나 거동이 힘든 노인이 있어 피난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피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잔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국군이 떠난 서울은 잠시 공백 상태로 지나간다. 하늘에서 퍼붓는 폭격과 중공군이 지나갔다는 이야기만 들려올 뿐 서울은 국군, 인민군, 연합군, 중공군들 중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때 서울에 잔류해 있던 사람들에게는 점령군이 없는 이 공백의 시간조차 용서되지 않았다. 단지 국군이 남하할 때 같이 피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반공이데올로기의 문제에 걸리게 된다. 중공군의 후퇴와 국군의 배급 소식을 듣고 강가로 나간 지영의 어머니 윤 씨는 중공군이 남기고 간 쌀을 가져오다가 국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다. 총을 쏜 군인은 “이 빨갱이 새끼들아! 피란 안 가고 무슨 개수작이야! 다 쏘아 죽여버릴 테다!” “너희 새끼들은 다 죽여도 말 못한다. 이 빨갱이 새끼들아!”(474쪽)를 외치며 윤 씨의 살해를 정당화했다.

이처럼 ‘반공’이데올로기는 빨갱이로 지목된 사람에게 즉결까지 가능한 힘을 가졌다. ‘반공’이데올로기는 전쟁의 수행 과정에서 싹트고 커진 적개심과 공산당으로부터 가족이나 동료들 잃은 원한으로 인해 극대화 되었고, 이로 인해 ‘빨갱이’에 대한 잔인한 복수는 암암리에 허용되었다. 특히 전시 상대방이 ‘적’으로 규정될 때 적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생각되었다. 이는 북측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군이 북한지역에서 철수한 후 치안대에 가담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피 학살자 가족의 보복이 시작되었다. 치안대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월남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렀고, 따라서 피 학살자 가족을 비롯한 일반 민중의 보복은 전 지역을 통해 진행되었다.²¹⁾

21) 사상에 따른 사적 보복이 일반화 되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대두했다. 그리하여 1950년 12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3 차 회의에서는 치안대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지침이 내려졌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적인 복수가 아닌 공개적 심판을 통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악질분자’와 ‘비 악질분자’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당시 사적인 복수로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던 행태를 금하고, 치안대 가담자들 중에서 죄행이 무거운 경우와 가벼운 경우를 구분해서 철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재용, 앞의 글, 99~100쪽.

『시장과 전장』에서는 서울에 잔류한 사람들의 생존과정을 통해 사상 검열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지영의 남편 기석과 지영의 어머니 윤 씨를 통해 아무 기준도 없이 사상의 잣대를 들이대던 당시의 현실이 드러난다. 이로써 하기훈을 통해 나타난 공산주의의 허구성이 남지영 주변 인물들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이념적 허구성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현실화되어 드러난다. 『시장과 전장』은 실체도 없는 ‘이념’ 앞에 맹목적으로 살아 남기만을 위해 분투했던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 전시 서울의 시장 형성과 생존

전쟁 중 ‘생존’의 문제는 사상 검열을 통과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쟁으로 생업을 잃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모색을 해야만 했다.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는 이유는 전쟁터에서의 무차별적 폭력을 피할 목적도 있지만, 의식주를 해결할 곳을 찾아 떠난다는 의미도 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은 피난을 떠난 사람들이나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매우 절실한 일이었다. 더구나 전쟁의 길목에서 전세에 따라 점령군이 뒤바뀌는 곳에서 기본 소비재를 확보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다. 『시장과 전장』에서는 이런 전시 의식주를 위한 소비재의 확보 문제를 ‘시장’을 통해 제시한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은 생산은 없고, 소비만 있는 곳이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서울에 남은 소비재는 줄어들고, 사람들의 소비는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은 가지고 갈 수 없는 물건들을 처분하고자 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를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시장과 전장』에서는 전쟁의 흐름에 따른 시장의 형성과 거래 양상을 남지영을 통해 보여준다.²²⁾

22) 『시장과 전장』에서 지영이 ‘생존의 자각을 통해 현실로 나아가고 있다’는 장미영의 논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두 가지 생존의 문제 즉 ‘사상 검열의 문

전쟁 발발 전, 어머니와 남편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위치를 상실했던 지영은 전쟁으로 인한 남편의 부재 속에서 가족들이 생존하기 위한 식량 확보를 책임지고 있다. 생산이 중단된 서울에서 식량의 확보는 그 공급로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식량의 공급은 배급을 통해서 혹은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시장과 전장』에서는 배급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식량 확보의 모습을 보여준다.

『시장과 전장』에서 ‘시장’과 ‘전장’은 남지영을 축으로 하는 현실의 공간 ‘시장’과 하기훈을 축으로 하는 이념의 공간 ‘전장’이라는 대립항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영이 보여주는 ‘시장’은 일상으로서의 시장이 아니라 전쟁 상황 속의 시장이다. 전쟁 상황에서도 ‘시장’이 형성되지만 일상에서의 ‘시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시장과 전장』에서의 시장과 전장은 대립되는 곳이 아니라 전장 속의 시장이 되는 것이다. “전장(戰場)과 시장(市場)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어도 “그 사이를 사람들은 움직이고 흘러”(246쪽)간다. ‘전장’과 ‘시장’은 모두 영속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발생하고 소멸한다. 그리고 그 사이를 움직이는 사람들로 인해 유기성을 지니게 된다.

전쟁 발발 직전 지영이 수업 후에 들었던 연안의 시장은 낭만이 있는 ‘페르시아의 시장’이었다. “시장은 축제같이 찬란한 빛이 출렁이고 시끄러운 소리가 기쁜 음악이 되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곳이다.”(129쪽) 시장에는 물감집, 잡화상, 철물점, 국수장수, 떡장수, 사주쟁이가 모여 있다. 지영은 낮선 도시, 낮선 거리, 그리고 낮선 사람들이 있는 이 시장을 지날 때 안심하고 기쁨을 느낀다. 전쟁 발발 초기만 해도 시장에는 낭만이 존재한다. “전쟁이 지나간 장터에도 음악은 있다. 장난감을 파는 가게에 인민군들이 서 있고 그들이 돌아갈 때 누이와 동생, 아들과 딸들에게 선물할 장난감을 고르고 있”(239쪽)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시장’에서

제와 ‘시장 형성의 문제’를 ‘지영’의 축에서 찾는 단서를 마련해준다.

장미영, 『박경리 소설 연구 -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1, 77쪽.

의 낭만성은 점차 사라지고 생존만이 남아있다.

전쟁은 ‘시장’의 거래 물품과 거래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쟁 초기 피난을 떠나는 지영의 가족이 피난집으로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식량이었다. 그리고 피난지에서 지영의 어머니 윤 씨는 개장국을 사는데, 이 또한 보유하고 있는 양식을 아끼기 위함이었다. 아직 전쟁 초기이고, 피난을 떠나는 사람 대부분이 식량을 챙겼기 때문에 식량 확보에 대한 큰 우려는 없지만, 그래도 “보리밥 한 덩이에 부르는 게 값이”(215쪽)될 만큼 전시의 식량은 민감한 문제로 인식된다. 그렇지만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이 곡식을 다 훔쳐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식량을 파는 사람이나 비싸게 사는 사람 모두 억울한 심정이다. 곡식을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기는 하지만, 한국정부가 남하하고, 인민군이 서울을 장악하게 되면 “남한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휴지가 될지도 모”(215쪽)르기 때문에 식량을 주고 화폐를 가지는 것은 불안하다. 그래서 “농민들은 벌써부터 쌀을 팔 때, 돈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피란민 보따리에서 의복까지가 나와야만 쌀을 내놓았다. 한편 피란민들은 되도록이면 의복 대신 돈으로 쌀을 구하려고 애를”(215쪽) 썼다.

지영 가족은 국군을 따라 남하하는 일에 실패하여 집으로 돌아오고, 인민위원회가 들어선 서울에서는 다시 일상이 시작된다. 지영의 남편 기석은 회사에 출근을 하고, 지영은 옷을 사기 위해 남대문시장으로 향한다. 공산치하에서 배급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시장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다. 시장의 그릇가게에는 커피세트, 은 스푼, 미제 과도, 스테인레스 냄비, 오븐 등의 물건이 있다. 싸구려 음식점이나 식료품 가게 앞에는 사람이 모이고, 떡 장수, 메밀묵 장수, 국수 장수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한 차례 전쟁이 휩쓸고 갔지만, 인민군이 들어온 서울은 질서가 재편되어 시장은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 나온 커피세트니 은 스푼이니 하는 중고물품들은 당장 필요한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팔려고 나온 사람만 많을 뿐, 이들 물건을 곡식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농사꾼조차 곡식을 내놓지 않아 시장에서 곡식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생산이 없는 곳에서의 소비는 축적된 재화를 통해서나, 물물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매일 소비해야하는 식량이 바닥 날 경우, 시장을 통한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장은 화폐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존재하지만, 화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교환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된다. 이때 교환하려는 물건 사이에는 ‘가치’의 우열이 가려지고, 가치 우위의 물건을 지닌 사람이 거래의 주체가 된다. “교환은 그 자체로서 독특한 사회학적현상이며 사회생활의 본원적인 형식과 기능이다. 그것이 효용과 희소성이라 불리는 사물들의 그러한 질적·양적 측면들의 논리적 결과가 아니다. 반대로 효용과 희소성은 교환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치형성의 요소로서의 중요성을 획득한다. 만약 다른 사물을 획득하기 위하여 한 사물을 기꺼이 희생하는 행위인 교환이 미리 배제되어 버린다면, 욕구된 사물의 희소성은 결코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수 없다. 한 개인에 대해 대상이 갖는 중요성은 항상 대상에 대한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상의 효용은 대상의 질적 속성에 의존한다.”²³⁾

『시장과 전장』에서 지영을 통해 보여지는 시장의 변화는 거래 물품의 효용성을 잘 보여준다. 물론 ‘식량’의 효용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지만, 시장에 공급된 물건들은 전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쟁 초기 시장은 식량과 옷가지는 물론 기념품과 사치품이 함께 공급되고,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만, 전쟁이 진행되면서 거래품목은 옷가지에서 식량으로 한정된다.

남대문. 사람의 물결 속으로 지영이 휩쓸려 들어간다. 시장에는 골목골목에 상품이 그득히 쌓여 있었다. 의류, 일상용품, 화장품, 신발 모두 옛날과 같이, 다만 식료품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으나 물건이 가난하다. 붉은 지폐가 벌써 나돌고 몸빼 입은 장사꾼 아주머니는,

23) 게오르그 짐멜, 안준섭 외 역, 『돈의 철학』, 한길사, 1983, 129쪽.

“인민군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죠?”

물건을 사려고 서성거리는 인민군에게 묻는다.

“막 밀고 내리가ديو. 부산까지 며칠 안 남았시오.”

땀내를 풍기며 대꾸한다.

“수고하십니다. 어서어서 끝장이 나와 할 건데 식량 때문에 야단이에요.”

“밀어붙이기만 하면 문데없ديو. 북반부에 식량 많소. 그동안 참아보자우요.”(237~238쪽)

시장의 변화는 매우 빠르고 민감하다. 시장에 거래되는 물건은 점점 빈약해지고, 그동안 서울에서 사용되던 남한의 화폐는 더 이상 효용가치를 찾지 못한다. 국군이 있는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면서 곡식을 내놓는 사람 들조차도 남한의 화폐 대신 옷가지를 얻고자 했고, 인민군이 점령한 서울의 시장에서는 벌써 북한의 붉은 지폐가 유통되기 시작한다.

시장의 상인들은 물건을 사러온 인민군을 통해 전세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곧바로 시장에 반영된다. 시장은 전세의 변동에 따라 붉은 지폐를 유통시키기도 하고 정지시키기도 한다. “사라져 가는 민심을, 사라져가는 인민들의 불길을 억지로라도 되살리기에 는 오직 승리가”(246쪽) 필요할 뿐이다. 민심의 촉각은 매우 예리하다. 전세의 향방에 따라 즉각적으로 민심이 움직이고, 민심이 사라지면 시장에서 붉은 지폐는 금방 그 효용을 잃게 된다. 이런 민심이 바로 시장은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특정 지폐의 효용뿐만 아니라 금권의 효력도 전쟁 중에는 민감하게 나타난다. 지역의 이모부 송 영감은 ‘부역자’로 지목되어 수감된 기석을 구명하는 수단으로 ‘권력’과 ‘돈’을 이용한다. 송 영감이 선택한 ‘권력’은 국회의원이며 변호사인 친척이다. ‘권력’이 발휘되면 기석을 사면시킨 수 있는 위력이 되겠지만, ‘돈’은 수감된 지기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미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시장과 전장』에서 ‘권력’은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 송 영감의 부탁을 받은 송 의원은 처음부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

다가 기석이 공산당 입당원서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간여를 꺼린다. ‘공산당 입당’의 문제는 ‘권력’에게도 위협이 되는 반공이데올로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하여간 정세만 좋아지면 괜찮겠지만 지금 사태가 자꾸 나쁘게만 돼”(418쪽)간다는 불분명하고 부정적 견해를 제시할 뿐이다. 송 의원의 견해는 권력과 상관없는 형무소의 마당에서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형무소 밖에서 수감된 가족들에게 새옷을 넣고, 헌옷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전쟁의 형세에 민감하다. 전세가 국군에게 유리해지면 수감자들에게도 별 탈이 없겠지만, 다시 전세가 역전되면 수감된 사상범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수감자나 가족들이나 모두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정세만 좋으면 풀려나올 사람들이” “중공군놈들 땀에 다 죽”(420쪽)게 생겼다는 푸념이 형무소 마당에 떠돌고 있다. 이들의 푸념이나 권력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결국 『시장과 전장』에서 기석을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시되었던 ‘권력’과 ‘돈’의 방식 중 ‘권력’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다.²⁴⁾

그러나 ‘돈’의 힘은 미약하나마 즉각적으로 확인된다. 송 영감은 지영의 시민증을 만들고, 지영은 지식에게 넣어줄 사식과 옷을 마련한다. 이는 모두 돈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다. ‘돈’을 통한 거래는 물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보의 교환이나 혹은 인신에 관한 문제에까지 확대되어 돈을 통한 시장의 거래는 매우 확장된 형태로 드러난다.

과연 떡값에 따라 떡이 기석에게 들어가는지,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되고

24) 임경순은 『시장과 전장』에서 기훈을 이념과 정치의 분리를 자신의 형상 안에 체현하는 인물로 보았다. 기훈이 공산주의 운동에 복무하면서 정치적이지 않은 이유는 정치가 이념과 상관없는 권력다툼의 추악한 현실이므로 기훈의 이념이 현실정치와 분리되어야만 가치를 가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경순, 앞의 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송상인 씨는 기석을 억울함 속에서 구제해줄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 일이 자신에게 ‘득’보다는 ‘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보인다.

허물어지고 부서지고 피가 천지를 물들이는 곳에 미친개처럼 몰려서 이 광장에 모여든 사람, 쓰레기같이 쌓여 있는 감방의 죄수들, 떡이, 돈이, 옷이 제대로 들어갈까?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안 믿으려 하지도 않는다.(404쪽)

“아무 말씀 마시고 떡이나 넣어주십시오. 넣기만 하면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날씨 추운 거야 체력으로 이기니까. 거 참 이상하더군요. 떡만 먹고 나면 속에서 더운 기운이 확 솟아오르디다그려.”

하며 그는 수감자들을 위해 떡을 넣으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 했다.(421쪽)

수감된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이 제대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의문은 형무소에서 석방된 사람의 입을 통해 풀린다. 이는 『시장과 전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장성과 상통한다. 시장은 정직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르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돈조차 속임수 없이 바깥에서 가족이 넣으면 수감자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형무소는 질서가 잡히지 않아 죄수들에게 밥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은 죄수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의 가족들은 떡을, 돈을, 옷을 넣어주어야 하고, 안에서 천대를 받지 않도록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야한다. 정치범을 수용한 형무소는 죄수와 가족들을 위해 물품 거래의 장소이면서 전시 사회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여실히 보여주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죄수의 행방을 알아보기 위한 뇌물과 죄수를 위한 사식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들이 먹고 쓰는 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형무소 주변은 또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형무소에 수감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교제를 위해 형무소로 모여든 사람들도 때가 되면 먹어야만 했다. 서대문형무소 마당은 면회를 통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이들에게 떡이며 국수를 파는 장사치들도 ‘돈’을 위해 모여 들었다. ‘돈’은

수감된 사람이나 이들에게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 모두에게 위력을 보여준다.

형무소 넓은 트랙에 물결처럼 사람들이 넘실거린다. 독립문에서 서대문 형무소에 이르는 너절한 양쪽 길에도 오가는 사람들로 길이 메인다. 찌부러진 국숫집, 빵집이 번창한다. 형무소 트랙에도 매점 이외 떡장수, 고구마장수가 목판을 벌여놓고 있었다.

도둑과 살인자와 사기꾼 그리고 정치범들이 살던 붉은 벽돌집은 지금 반역자들로 가득 차고 광장에는 그 반역자들의 가족으로 가득 차 있다. 꽃시절이 되면 창경원 울타리 밖에까지 매표구를 늘어 한철을 재미 보는 것처럼, 꽃바람은 가고 지금은 초겨울, 누더기 걸친 구경꾼 아닌 가엾은 무리들이 임시로 마련된 창구 앞에 차례를 기다리고 서 있다.(399쪽)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소비활동이 중단되지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비는 막을 수 없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 최소한의 소비재는 공급된다. 이런 소비재 특히 식량은 전시의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시장과 전장』에서는 전시 시장에 공급되는 먹거리의 변화를 보여준다. 국군이 서울을 탈환한 뒤 ‘시장’의 모습은 작품 속에서 본격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군의 서울 탈환과 함께 사람들이 피난지에서 서울로 돌아오고, 시장은 잠시 활력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밀가루의 시장 유통은 등장인물들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나타난다. 인천에서 기적의 체포 소식을 가지고 온 평양댁 아주머니는 ‘밀떡’으로 요기를 했다고 하고, 지영의 이웃에 사는 여의사는 딸에게 저녁거리로 ‘밀가루’를 사오라고 한다. 이는 밀가루가 쌀을 대신할 식량으로 시장에 나왔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시장 거래 물품의 변화는 이후 연합군의 서울 입성 때 다시 드러난다. 연합군은 부산을 통해 전투식량과 보급품을 공급받았고, 연합군이 서울로 들어올 때 이들 물건도 함께 들어와 시장에 공급됨으로써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게 된다. 연합군으로부터 보급된 전쟁구호물자와 미군부대로부터 빼돌린 물건들로 인해 시장은 통조림과 과자 같은 먹거리가 유통된다.

이는 연합군의 등장이 피난했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서울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서울에 아무리 많은 물자들이 보급된다 하더라도 서울에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다면 이런 물건들을 거래할 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군 등장 이전, 중공군이 서울을 장악했을 때, 지영은 서대문 형무소에 있던 남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해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또다시 서울에 잔류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인민군과 국군의 서울 점령을 번갈아 겪으면서, 적의 치하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부역’이 된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후퇴하는 국군과 함께 피난을 떠나고, 서울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텅 비어있었다.²⁵⁾ 지영의 가족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서울에 고립된 채 남아있어야 했다. 이렇게 모두가 떠나버린 서울에는 더 이상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서울에는 더 이상 팔 물건도 남아있지 않지만, 물건을 살 사람도 팔 사람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은 피난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야만 다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윤씨는 지영의 팔을 잡고 내려온다. 지영이 드럼통 위로 올라가서 가만히 바라본다. 과연 피란 보따리가 돌아온다. 한강 마루턱 고갯길에. 해가 비치는 곳에 보따리를 인 여자와 룩색을 짙어진 사나이들이 돌아온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손가락만 한 그들의 모습을 지영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윤씨는 턱을 쳐들며,
“오지, 응, 오지?”

25) 김동춘은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1차 피난’을 정치적·계급적 성격의 피난으로 보고,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피난을 ‘2차 피난’으로 부르면서 이는 생존을 위한 피난이었다고 규정한다.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2000. (강성현, 앞의 글, 126쪽에서 재인용)

아이들이 나란히 유리창 속에 서 있다.

피란 짐은 언덕의 양옥집 뒤로 사라졌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다시 보이지 않는다. 지영은 그대로 서서 아득한 서울 쪽을 바라보고 있다.

“왜 돌아올까?”

중얼거린다.

“왜라니? 돌아와야지. 사람들이 돌아와야 우리가 살지!”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듯 윤씨는 기쁘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다.

“중공군이 많이 밀고 내려간 모양이에요.”

“중공군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무슨 상관이고, 사람이 와야 우리가 살지. 옷 한 가지를 팔아먹어도.”

“이 복판에서 우린 굶어 죽을지 몰라요.”

“와 굶어 죽어. 사람만 오면 양식도 따라온다.”(444쪽)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식량을 구할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그 중에는 식량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다. 전쟁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든다. 모든 신경이 자신과 가족이 살아남는 것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먹을 것만 찾는 데도 짐승 같지 않고 도둑질을 하는데도 도둑놈 같지 않고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 같지 않”(267쪽)게 하는 것이 전쟁이다. 일반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공군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것은 관심 밖의 일이다. 다만 이웃들이 돌아와 시장이 형성되는 길만이 생존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이 될 뿐이다.

지영의 가족은 남하했던 국군과 함께 사람들이 서울로 돌아오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국군의 서울 입성은 지영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다. 국군의 입성은 또다시 ‘부역’의 문제를 야기한다. 윤 씨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텅 비었던 서울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던 가운데 국군의 배급 소식을 듣고 한강 모래밭으로 나가지만, 중공군 치하에서 살아남은 ‘빨갱이’로 몰려 죽임을 당한다. 적의 치하에서 살아남

는 것은 여전히 ‘사상’을 의심받는 일이고, 윤 씨는 현장에서 즉살됨으로써 ‘자신이 원했던 것이 굶주림을 면할 식량이었다’는 해명조차 할 기회가 없었다. 사람들이 돌아와야 생존을 보장받을 ‘시장’이 형성된다고 생각했던 윤 씨는 결국 돌아온 사람들에게 의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다. 윤 씨의 죽음은 『시장과 전장』에서 생존의 문제가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식량 확보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시장과 전장』이 나타내는 두 축 ‘시장’과 ‘전장’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시 서울의 시장은 전쟁 상황에 따라 거래 물품이나 양, 가격을 조절한다. 전시에도 사람만 모이면 평시와 같이 시장이 형성되지만 시장은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서울을 벗어나면 시장은 서울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기석과 윤 씨가 전시 생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지영을 가장으로 남기고, 지영은 송 영감이 부탁으로 자신들을 데리러 온 최 영감과 함께 뒤늦게 피난길을 떠난다. 최 영감은 송 영감으로부터 받아 온 삼십만 원으로 짐꾼을 사고, 대폿집을 들르고, 기차를 타고, 달구지와 차편을 구한다. 최 영감이 지닌 화폐는 시장이 활성화 된 피난길에서 그 가치를 발휘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의 업무를 내지 못했던 지영은 최 영감이 가진 화폐의 위력으로 비로소 피난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곳곳에 시장이 열린다. 영등포에는 서울로 입성한 군인들을 위한 대폿집이 영업을 하고, 김천에는 피난민을 상대로 하는 시장이 열린다. 사람들이 몰리는 피난지의 시장은 서울에서 열리는 시장과는 달리 활기를 띤다. 사람들이 떠나버린 서울에서의 시장은 화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지만 지방에서는 화폐로 지영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구할 수 있다. 화폐는 곧 지영이 힘을 들이지 않고 피난길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 인민군과 국군이 교대로 점령한 서울에서 화폐는 언제든지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었지만, 시장이 활성화되면 비로소 돈은 교환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화폐가 교환 가능성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안정성 때문이다. 그 가치기준이 오늘과 내일, 혹은 수시로 달라진다면 어느 누구도 상품과 돈을 교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은 화폐의 이중성을 의미한다. 즉 화폐는 교환의 순환에 기여하는 만큼 유동성을 크게 가지면서 동시에 교환의 기준으로서 안정성을 갖는다.²⁶⁾ 피난민이 빠져나간 서울에서는 화폐의 가치가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화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서는 화폐가 급속히 제 기능을 회복하여 안정성을 되찾게 된다. 그러므로 지영의 피난길을 인도하는 최 영감은 시장 기능이 회복된 곳에서 ‘돈’의 힘으로 짐꾼을 사고, 술과 음식을 향유한다. 시장 형성은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폐의 기능 역시 시장의 형성에 따라 그 가치를 잃거나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과 전장』에서 지영은 전쟁 전 시장을 통해 낭만성을 향유하고, 전시의 서울에서는 시장을 통해 극한의 생존을 모색하며, 피난길에서 다시 회복한 시장의 기능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을 통해 보이는 경제의 흐름은 점령군의 성격과 전세에 따른 거래 물품과 거래 방식의 변화, 화폐의 가치 차이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쟁에 따른 경제의 변화를 시장을 통해 민감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시장과 전장』이 ‘시장’을 통한 지영 가족의 생존 방법 모색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전쟁 당시 서울의 경제적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전후 작품들과 차별된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한다.

26) 게오로그 짐멜, 앞의 책, 119쪽.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전시 생존의 문제를 살피고자 했다. 『시장과 전장』은 하기훈을 중심으로 한 서사와 남지영을 중심으로 한 서사로 이루어졌다. 공산주의자 하기훈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이념에 따른 갈등과 반목을 보여준다. 이들 사회주의자들은 보이지 않는 조직에 의해 움직이고, 이들에게 배신은 곧 응징이라는 공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준 이념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적 이념에 그침으로써 한국전쟁이 가진 이념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한편 남지영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어떤 사상도 가지지 않은 소시민의 삶을 보여준다. 이런 아무런 이념도 없는 소시민이 이념의 잣대에 의해 평가되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하기훈의 서사를 통해 보여주었던 이념의 허구성을 현실적으로 제시했다.

『시장과 전장』의 공간적 배경은 삼팔선 부근부터 지리산까지 넓게 펼쳐져 있지만, 이 중 남지영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당시 서울은 전세에 따라 점령군이 바뀌던 곳으로, 이곳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시장과 전장』에서 지영의 서사를 통해 서울에 잔류한 사람들의 생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중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문제는 ‘사상의 검열’이다. ‘사상 검열’의 문제는 이념이나 사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서울을 점령한 점령군들이 정한 ‘반공’이데올로기나 ‘반동’이데올로기를 통해 드러난다. 지영의 남편 기석은 인민군 치하에서 공산당 입당원서를 썼다는 이유로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구속되었고, 생사조차 알 수 없다. 지영의 어머니 윤 씨는 중공군이 서울에서 물러가고 국군이 식량배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빨갱이로 낙인되어 총살당한다. 이들은 ‘빨갱이’라는 ‘반공’이데올로기의 검열을 넘지 못하고 죽거나 실종된다. 이들이 이념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 사상의 검열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사상 검열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생존

을 위협했고, 『시장과 전장』에서는 기석과 윤 씨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과 전장』의 다른 생존 문제는 ‘의식주 해결’이다. 『시장과 전장』은 의식주 해결을 통한 생존 문제를 ‘시장’의 형성을 통해 제시한다. 시장은 작품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등장한다.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시장의 모습은 남편의 부재로 가장이 된 지영을 통해 제시된다. 지영은 전쟁 중에도 필요한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장을 찾는다. 시장은 전쟁의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모한다. 전쟁 초기에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여러 종류의 물건들은 전쟁이 지속되면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으로 한정된다. 전시 시장은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형성되고 소멸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난 서울에서 식량을 확보하는 일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하지만 생선이 없는 전시의 서울에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시장의 형성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식량 확보를 위해 서울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재화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시장과 전장』에서 제시하는 ‘사상 검열’과 ‘시장 형성’은 전시 생존이라는 의미에서 분리되어 생각될 문제가 아니다. 기석이 공산당에 입당원서를 낸 것은 ‘자기 일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 윤 씨 부인은 서울에 사람이 들어와야 산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윤 씨가 기다리던 사람들이 국군과 함께 서울로 들어왔지만 윤 씨는 기다리던 국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윤 씨의 죽음은 『시장과 전장』에서 다루는 두 생존의 문제 즉 ‘반공’이데올로기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또 한편 곡식의 유통문제와도 뒤섞여 관련된다. 그러므로 『시장과 전장』에서 드러난 전시 두 생존의 문제는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과 전장』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서의 생존이 ‘이념’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시장의 형성’이라는 ‘경제적 문제’ 속에서 파악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일은 개인적인 문제

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였고, 그 가운데 경제적 원리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이 지식인 여성의 문제, 공산주의나 아나키즘과 같은 사상의 문제에서 논의된 것에 덧붙여 전시 ‘이념’과 ‘시장의 형성’ 문제로 확장하여 살폈다. 『시장과 전장』은 소시민의 생존이라는 문제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을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핀 의미있는 작품이다. 이는 『시장과 전장』이 여타 한국 전후 소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박경리, 『시장과 전장』, 마로니에북스, 2013.

2. 단행본

강성현 외, 『전장과 사람들』, 선인, 2010, 124쪽.

게오르그 짐멜, 안준섭 외 역, 『돈의 철학』, 한길사, 1983, 119, 129쪽.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348~349, 361쪽.

이임하 외,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 - 미군 문서로 본 한국전쟁과 학살』, 선인, 2011, 144~145쪽.

조남현,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255쪽.

3. 논문

김양선, 「한국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 『페미니즘연구』 제8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8, 197~222쪽.

김예니, 「박경리 초기 단편소설의 서사적 거리감에 따른 변화 양상」, 『돈암어문학』 제27호, 돈암어문학회, 2014, 217~251쪽.

김은경, 「박경리 장편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가치’에 대한 태도와 정체성의

- 관련 양상,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2007, 433~480쪽.
- 김은하, 「전쟁미망인 재현의 모방과 반영 - 박경리의 『표류도』를 대상으로」, 『인문학 연구』 47,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277~301쪽.
- 김재용, 「'반동'이데올로기와 민중의 선택」, 『역사문제연구』, 역사문제연구소. 2001.6, 97~110쪽.
- 백낙청, 「피상적 기록에 그친 6.25수난」, 『신동아』, 동아일보사, 1965.4, 324~327쪽.
- 서재원, 「박경리 초기소설의 여성가장 연구 - 전쟁미망인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0집 (15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151~167쪽.
- 유임하,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문학적 전환 - 『애가』, 『표류도』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481~508쪽.
- 이선미, 「한국전쟁과 여성 가장 : '가족'과 '개인' 사이의 긴장과 균열 - 1950년대 박경리와 강신재 소설의 여성 가장 형상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회, 2003, 88~116쪽.
- 임경순, 「유토피아에 대한 몽상으로서의 이념」, 『한국어문학연구』 제45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 271~298쪽.
- 장미영, 「박경리 소설 연구 -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1, 1~172쪽.
- 허연실, 「1950년대 박경리 소설의 '근대'와 '여성」, 『한국문예비평연구』 3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399~421쪽.

Abstract

The Narrative of Survival on 『Market and Warfield』

Park, Eun-Jung

The novel of Pak Kyongni, 『Market and Warfield』, has the look and people's survive in the turbulence of war in the Korea war background. It is difficult and unthinkable in everyday life to imagine how to live in a situation of war. Therefore, it would be called to be survived rather than to be lived up in the warfield. The survival of the damage from the gun and the knife in the warfield, means that life going after the resolution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The problem of survival in this Korea War, added up the problem of 'ideology', leads to more complex difficulties. Survival of the war in Korea also means passing the censorship of ideology. Therefore, the problem of 'ideology' when dealing with the war in Korea Literature has been seriously recognized. In addition, the problem of hunger in the war time was also discussed.

This study focuses on the "censorship of ideas" of the issue of wartime survival and 'market formation'. This study looks at these issues around the axis of 'Ji-young' among two judges of the market and the warfield. Because this study has studied the problem of 'censorship' from the narrative of 'Ji-young', rather than 'Ki - hun', because of the following means. In other words, the novel is paying attention to the people who are concerning about the problems of its own life and death in the war time rather

than the problems of 'spirit of censorship'. Ji-young, who remains and un-evacuated in Seoul right after Korean War, should have passed through any censorship whenever the occupation forces of the People's Army and the Armed Forces changed to Seoul, the Chinese and Allied forces. Because of this problem, the husband of 'Ji-young' is going captured, and her mother is going to die. However, the victims in this novel are people who do not have anything to do any 'ideology problems'.

The problem of the 'market formation' in the 『Market and Warfield』 is a special point that can not be found in other works. All of the ways people survived the evacuation left the empty Seoul, to resolve the problem of food is very important. This works through the narrative of 'Ji-young' show the formation of the market, in accordance with the movement of refugees. Even in the war time, there should be transactions among people wherever people are gather together. And also the items and products in transaction sh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war situations.

Meanwhile, the initial novels of Pak Kyongni of women problems about war widow or intellectuals, have been identified to focus also on the lots of problems of ideology.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research of novel of Park Kyongni, this study will address again the important novel work value as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society and the economy at the time of Korea War.

Key words : The Novel in Korea War, The Novel of War by Park Kyongni, Survival in War, Censorship of Ideology, Anti Communist Ideology, Market Formation in Wartime.

- 본 논문은 2016년 7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